

항공운송 동향분석

2012년 1월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2012년 1월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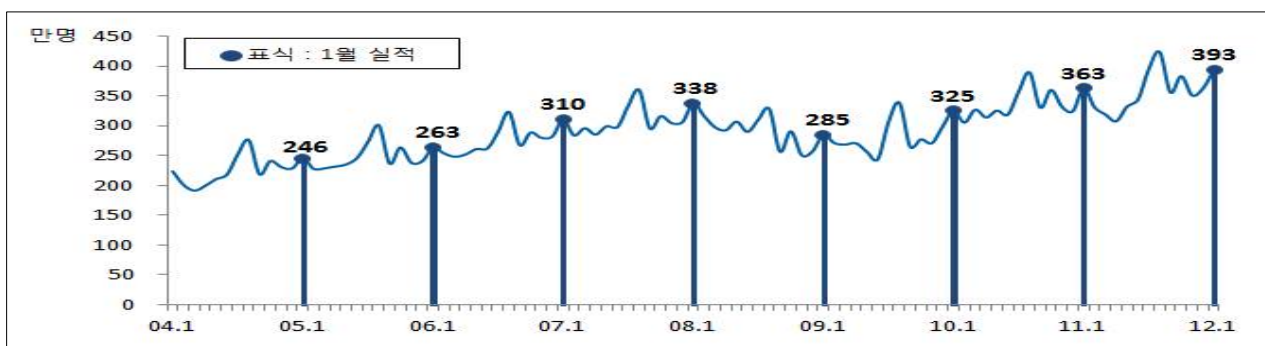
요약

2012년 1월 설 연휴(1.20~1.25), 중국 춘절연휴(1.22~1.28) 등으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로 국제 및 국내여객 전년대비 각각 8.3%, 16.2% 성장한 반면 항공화물은 세계경기불안 지속, 연휴로 인한 조업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6.9% 감소

국제여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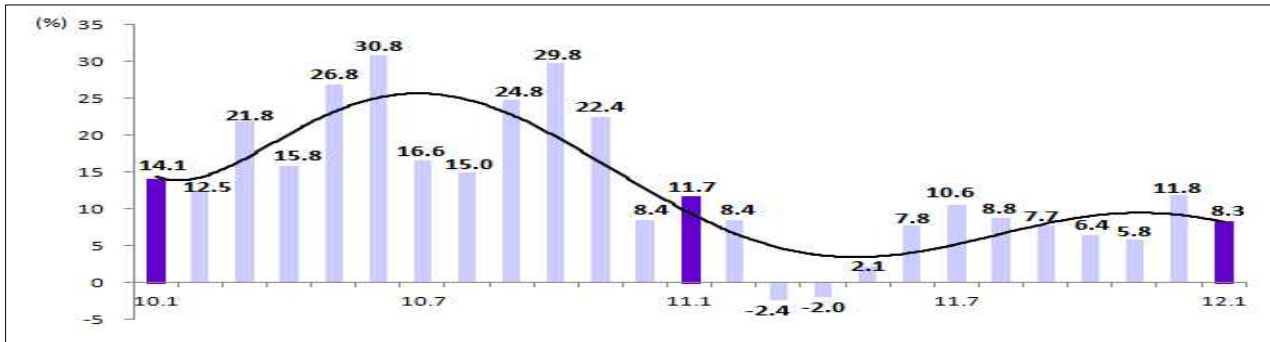
2012년 1월 국제여객은 설 연휴(1.20~1.25), 중국 춘절연휴(1.22~1.28), 겨울방학 등으로 인한 여행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8.3% 증가한 3,928,860명을 달성하였다. 특히 설 연휴와 중국 춘절연휴가 전년에는 2월¹⁾에 있었던 것에 반해 금년에는 1월에 있어 국제여객 부문은 불안정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연휴 여행수요로 인해 호조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여객 실적추이



1) 2011년 설 연휴(2.1~2.5), 중국 춘절연휴(2.2~2.8)

월별 국제여객 증감률



공항별 국제여객을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청주공항을 제외한 모든 국제공항이 1월 전년대비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며, 특히 제주공항이 전년대비 운항과 여객이 각각 42%, 69%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그 뒤를 이어 대구공항이 전년대비 21.8%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고, 김해·김포공항도 전년대비 10%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공항별 국제선 실적

(단위 : 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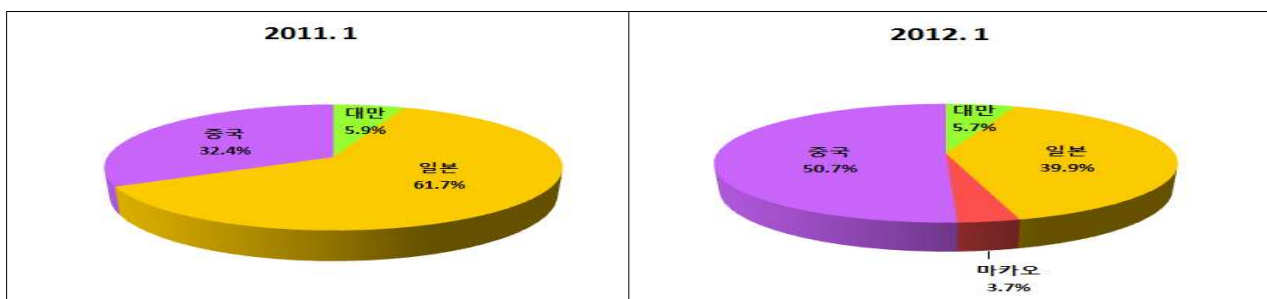
구분	운항			여객		
	'11년 1월	'12년 1월	전년대비	'11년 1월	'12년 1월	전년대비
인천	19,015	19,846	4.4%	2,964,248	3,163,725	6.7%
김해	2,213	2,625	18.6%	301,240	341,785	13.5%
김포	1,488	1,736	16.7%	279,878	312,776	11.8%
제주	352	500	42.0%	32,540	55,006	69.0%
청주	177	170	△4.0%	21,760	21,330	△2.0%
대구	102	133	30.4%	15,037	18,313	21.8%
무안	109	108	△0.9%	13,077	14,294	9.3%
양양	0	18		0	1,631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 제주공항의 국제여객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과 중국의 비중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2011년 3월 대지진 발생 및 원전사고, 지속적인 여진 발생 등으로 여행소비심리 회복이 늦어지면서 1월 제주공항 일본노선여객은 전년대비 10.4% 증가하였음에도 비중은 전년대비 약 21% 포인트 감소하였다. 특히 오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노선(후쿠오카, 나고야, 도쿄)이 감소세를 보인 점은 일본노선의 회복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점을 시사해주었다.

반면 중국노선은 중국 춘절영향 등으로 여객이 전년대비 2.7배(167%)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내었는데, 비중 또한 약 19%포인트 증가하며 제주공항 국제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중국노선에서는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의 약진을 눈여겨 볼 수 있는데, 2011년 하얼빈과 상해운항²⁾을 시작한 진에어는 기존 수요이상의 여객수요를 견인함으로써 중국인 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공항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보인 대구공항은 따뜻한 날씨를 지닌 국가를 중심으로 여객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콩노선의 여객수요는 전년대비 69.5% 증가하였고, 캄보디아 씨엠립의 경우에도 홍콩노선만큼의 수요가 창출되면서 설 연휴, 겨울방학 등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따뜻한 곳으로 여행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노선은 전년대비 1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공항 국적별 국제선 여객 비중변화



2) 진에어: 제주-상해노선 2011년 7월 15일 주 7회 정식취항, 제주-하얼빈노선 2011년 4월 18일 부정기편 주 2회 취항, 하얼빈 노선은 지난 1월 29일 이후 미운항 상태

지역별 국제여객 실적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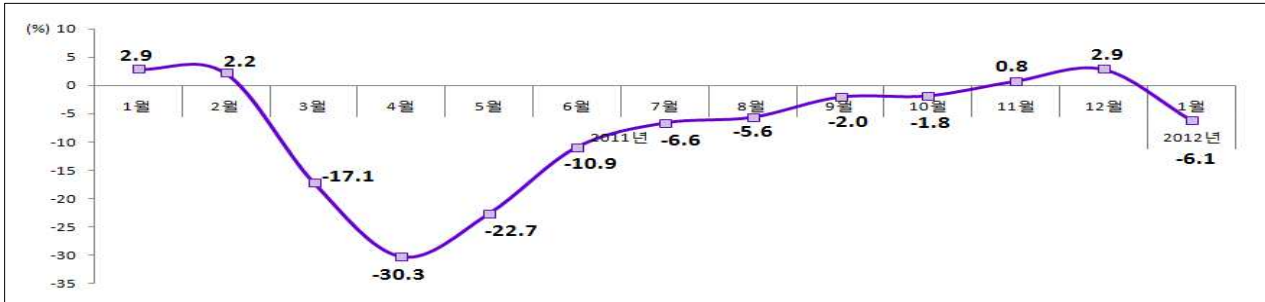
구분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대양주	기타
'11년 1월	929,989	324,421	1,237,947	738,373	209,713	129,351	57,986
'12년 1월	873,192	352,425	1,457,909	790,738	230,028	168,196	56,372
전년대비	△6.1%	8.6%	17.8%	7.1%	9.7%	30.0%	△2.8%

지역별로 살펴보면 국제여객 실적을 살펴보면 일본노선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성장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대양주지역은 전년대비 30%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유럽-대양주를 연결하는 썬더루트의 환승수요 및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였다.

그 뒤를 이어 동남아노선은 설 연휴기간, 겨울방학 등을 이용하여 따뜻한 곳으로 여행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콩노선은 설 연휴, 중국 춘절연휴 등 연휴 여행수요로 여객이 급증하였는데, 인천-홍콩노선은 1월 전년대비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콕노선은 지난 대홍수 사태이후 회복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인천-방콕노선은 전년대비 7% 감소하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노선은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춘절연휴로 인한 한국 방문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8.6% 증가하였으며, 미주·유럽노선도 겨울방학 장거리여행 및 중화권 연휴로 인한 환승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7% 이상의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대지진발생이후 일본노선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마지막으로 2011년 3월 대지진 발생이후 마이너스 감소세를 지속하다 11월 이후 회복세를 보였던 일본노선은 1월 다시 전년대비 6.1% 감소하며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경제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인 엔화상승과 1월 몇 차례의 지진 발생 및 폭설로 인한 사고³⁾가 이어지며 내국인의 여행소비심리가 위축된 점을 시사해주었다.

1월 국적사의 비율은 전 지역 평균 66.3%로 전년대비 0.9%포인트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는 전년대비 1.7배 증가하여 6.3%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LCC 부담률 : 0.2%('09.1) → 1.7%('10.1) → 3.9%('11.1) → 6.3%('11.1)

1월 인천공항의 환승여객은 춘절연휴에 따른 동남아·미주·유럽 환승여객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9.9% 증가하며 개항 이래 월 최초로 60만명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승률도 전년대비 3.4%포인트 증가한 19.0%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승여객 : 46만명(' 10.1) → 47만명(' 11.1) → 61만명(' 12.1)

* 환 승 률 : 17.0%(' 10.1) → 15.7%(' 11.1) → 19.0%(' 12.1)

3) 지진 : 시즈오카현 규모 7.0('12.1.1), 이바라키현 규모 5.8('12.1.12), 야마나시현 규모 5.5('12.1.28), 이와테현 규모 5.6('12.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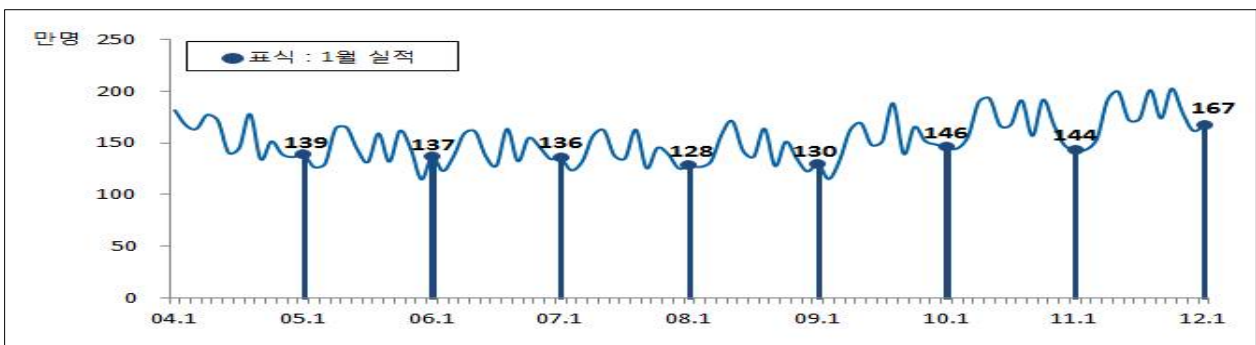
폭설 : 아오모리현 4m, 야마가타·니가타현 각각 3m 적설량을 기록

국내여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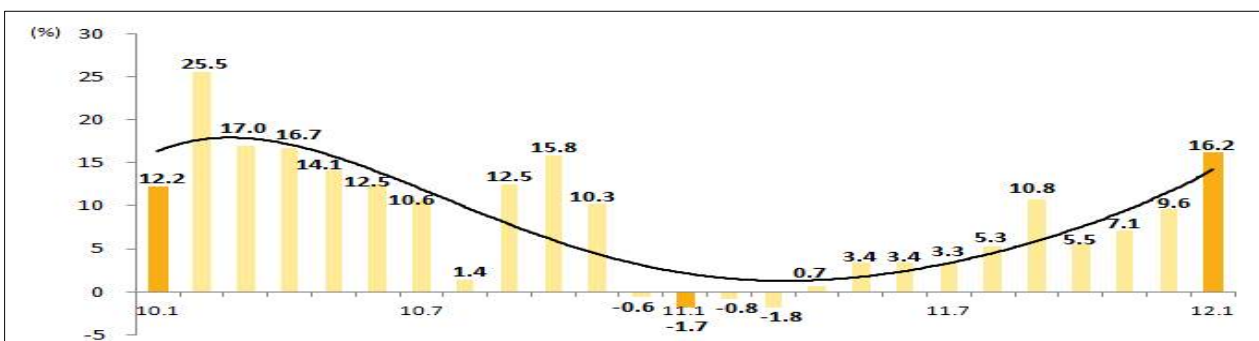
2012년 1월 국내여객은 설 연휴 귀성여객 및 '11년 동월 기상악화로 인한 감소수요가 회복되면서 전년대비 16.2% 증가한 1,669,994명을 달성하였다. 운항이 전년대비 8.3% 증가한 것에 비해 여객수요의 성장세가 두 배정도 높게 나타난 점과 KTX 개통 영향권 지방공항들이 감소폭을 줄인 점은 연휴 수요의 영향을 시사해주었다.

금년 설 연휴는 전년과 달리 1월에 있음으로써 여객성장세를 보다 높게 나타나게 한 요인이 되었는데,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월 여객자료와 설 연휴(1.20~1.25) 여객자료를 일평균으로 환산하여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여객 실적추이



국내여객 증감률



1월 일평균 국내여객은 53,871명이었고, 설 연휴 일평균 국내여객은 61,315명으로 설 연휴 일평균 국내여객이 1월 일평균 국내여객보다 13.8% 높게 나타났다. 특히 KTX 개통 영향권인 울산·여수공항은 1월 국내여객이 전년대비 각각 4.7%, 6.9% 감소하였는데 이는 KTX 개통이후 평균적으로 보여 왔던 것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든 것이었고, 월 국내여객수요와 설 연휴 국내여객수요를 일평균으로 환산하였을 때 설 연휴기간이 약 20% 정도 높게 나타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설 연휴기간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국내여객실적을 제주노선과 내륙노선으로 나누어살펴보면 제주노선은 항상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내륙노선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었지만 1월에는 설 연휴 영향으로 제주노선과 내륙노선 모두 플러스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노선은 전년대비 20.9% 증가, 내륙노선은 전년대비 3.8% 증가하였고 탑승률 또한 모두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공항별로 국내공항의 여객실적을 살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세를 보인 울산과 여수공항은 제주노선의 경우 상반되게 제주노선 중 감소세가 큰 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항별 국내선 여객실적

(단위 : 회, 명)

구분	운항			여객					
	'10년 1월	'11년 1월	증감률 (%)	'10년 1월	'11년 1월	증감률 (%)	월 일평균	설연휴 일평균	증감률 (%)
제주	3,858	4,422	14.6	532,441	647,464	21.6	20,886	21,453	2.7
김포	4,116	4,436	7.8	496,360	576,712	16.2	18,604	22,513	21.0
김해	1,614	1,665	3.2	184,724	207,077	12.1	6,680	7,724	15.6
광주	442	468	5.9	47,936	56,244	17.3	1,814	2,413	33.0
청주	310	337	8.7	45,160	46,622	3.2	1,504	1,483	△1.4
대구	282	301	6.7	37,061	37,561	1.3	1,212	1,458	20.3
여수	249	253	1.6	27,293	26,012	△4.7	839	1,035	23.3
울산	347	247	△28.8	25,967	24,187	△6.9	780	957	22.7

제주 · 내륙노선 국내여객실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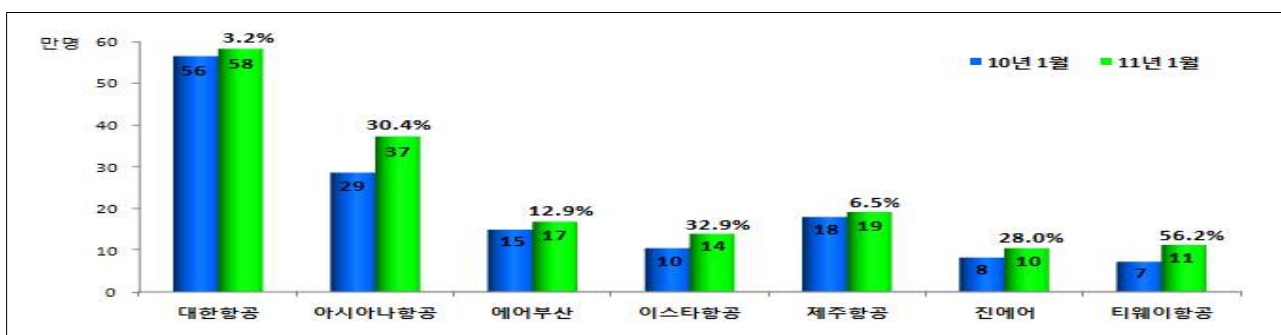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 분	제주노선		내륙노선	
	여객	탑승률	여객	탑승률
2011년 1월	1,047,419	70.7%	389,311	57.2%
2012년 1월	1,265,818	75.2%	404,176	61.1%
전년대비	20.9%	4.5%p	3.8%	3.8%p

제주노선의 대부분의 노선은 전년대비 플러스성장을 나타내었으나 제주-사천, 제주-여수, 제주-울산노선은 마이너스 감소세를 보였고 그 중 여수와 울산노선은 전년대비 각각 9.1%, 1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노선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김포·김해노선의 경우 1월 전년대비 2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월 제주노선에서 김포-제주노선은 63.0%, 제주-김해노선은 15.8%를 점유하였으며 제주-여수노선과 제주-울산노선은 0.1~0.2%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작아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월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715,021명으로 전년대비 21.9% 증가하였으며, 분담률 또한 2.0%포인트 상승한 42.8%를 기록하였다. 1월 대형국적사의 평균탑승률은 64.6%로 나타났으며, 저비용항공사의 평균탑승률은 82.5%로 나타나면서 대형국적사에 비해 저비용항공사의 탑승률이 높게 나타난 점을 알 수 있다. 1월 가장 높은 탑승률을 기록한 항공사는 제주항공으로 90.3%의 높은 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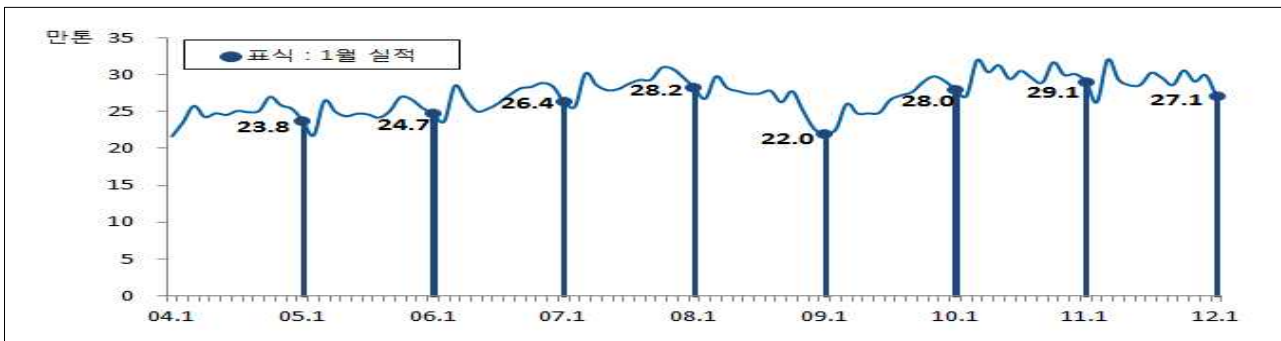
국내선 항공사별 실적 비교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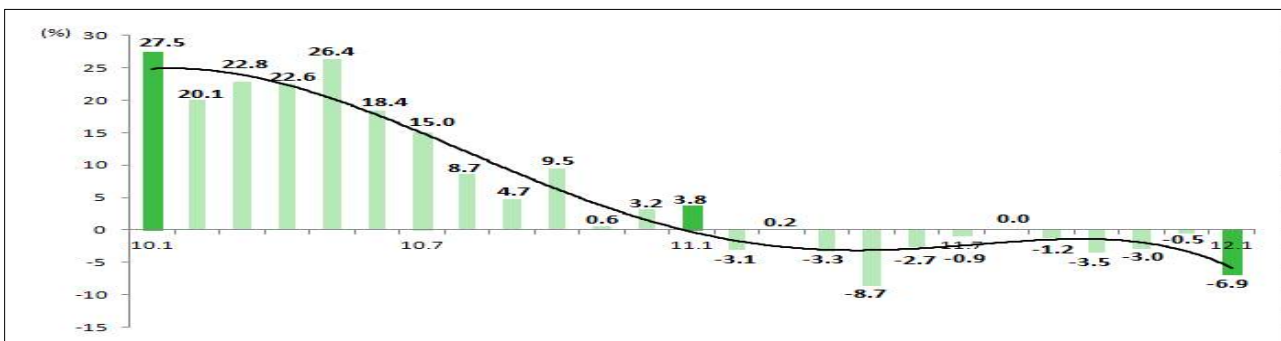
항공화물

2011년 1월 항공화물은 세계 경제 불안지속, 연휴에 따른 조업단축, 환율변동 심화 등 외부변수들의 영향으로 산업 전반적인 수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됨으로써 감소세를 더욱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6.9% 감소한 270,510톤을 기록하였고, 국제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9.6% 감소한 244,871톤을 기록하며 감소세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국내화물은 전년 기상악화로 인한 감소수요 회복, 국내여객 급증에 따른 수화물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9.8% 증가한 25,639톤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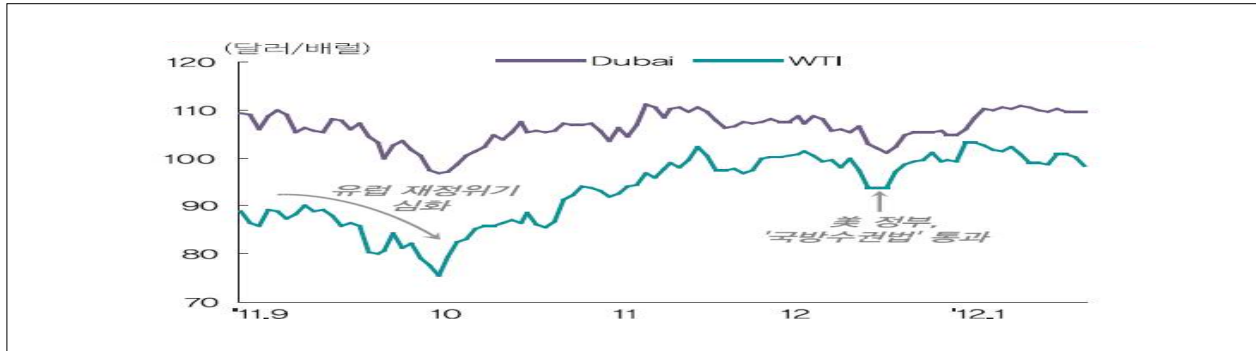
전체 항공화물 실적추이



전체 항공화물 증감률



최근 유가 추이



특히 경제상황에 민감한 국제화물은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일본 무역의 적자 기록, 유럽 및 중국 제조업 지수의 개선 등 세계경제 혼조세 영향을 받으며 1월 감소세가 더욱 확대되면서 2012년 항공화물 시장을 무겁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화물 운송량의 약 95%를 점유하는 인천공항은 전년대비 10.8% 감소하며 전체 항공화물의 감소세를 이끌었고, 국내화물의 경우⁴⁾ 제주공항이 전년대비 66.0% 증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이 각각 22.9%, 10.6%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국제화물 실적

(단위 : 톤)

구분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11년 1월	37,259	51,131	76,201	55,721	42,487	4,417	3,695
'12년 1월	33,587	42,852	70,773	49,318	39,379	5,032	3,931
전년대비	△9.9%	△16.2%	△7.1%	△11.5%	△7.3%	13.9%	6.4%

4) 제주공항: '12년 1월 57% 점유, 김포공항: '12년 1월 23% 점유, 김해공항: '12년 1월 11% 점유

지역별로 국제화물 실적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설 연휴, 중국 춘절연휴에 따른 조업 단축 등으로 인한 기저효과, 이란 핵개발에 따른 미국과 이란간의 갈등 고조에 따른 유가상승 우려확대,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대양주를 제외한 전 지역이 마이너스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지역 중 가장 큰 감소세를 보인 곳은 중국으로 장기연휴로 인한 운송량 감소, 선진국 경기불안에 따른 긴축정책의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미주지역이 전년대비 11.5% 감소하였는데 이는 최근 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9개월 이래 최고 폭으로 증가하고 ISM서비스업지수도 11개월 이래 최대인 56.8을 기록하는 등 미국의 경기지표 개선세가 12월에 이어 지속되었음에도 항공화물 시장은 연휴로 인한 수요 감소, 대외적 불안요인 지속으로 인한 리스크 확대 등으로 침체기를 지속하며 회복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유럽, 동남아, 일본 또한 약 7% 이상의 감소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경제침체가 수출 중심인 아시아 경제에 타격을 보다 크게 미친 점을 시사해주었다. 최근 일본 재무성에 의해 발표된 2011년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2011년 무역수지는 2조 4,927억 엔(약 113억 달러) 적자로 2차 석유위기를 겪은 198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유럽과 미국의 상황보다 더욱 불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자료(금액기준)에 의하면 IT제품 수출은 설 연휴 조업 단축,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1월 전년대비 12.8% 감소하며 지난 4/4분기 이래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IT 수출 증감률 : ('11.11) Δ 4.8% \rightarrow ('11.12) Δ 3.4% \rightarrow ('12.1) Δ 12.8%

* 전년대비 IT 수입 증감률 : ('11.11) Δ 2.8% \rightarrow ('11.12) Δ 3.9% \rightarrow ('12.1) Δ 10.4%

- * DRAM 가격(달러) : ('11.1) 1.91 → ('12.1) 0.88, △53.8%
- * 낸드플래시 가격(달러) : ('11.1) 5.38 → ('12.1) 3.28, △39.0%
- * LCD TV용 패널 가격(달러) : ('11.1) 279.0 → ('12.1) 217.8, △21.9%

특히 전월에 플러스성장을 보였던 일본과 중국이 1월 IT산업 수출이 전년대비 각각 3.0%, 6.6% 감소한 점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IT산업 수출의 제약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점을 시사해주었지만 2월에는 연휴에 따른 감소수요가 회복되면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의 환적화물은 항공화물 감소와 함께 83,314톤으로 전년대비 10.3% 감소하였지만 전체 환물 물동량 감소폭에 비해 환적화물 감소폭이 작음으로써 환적률은 전년대비 2.4%포인트 상승한 46.7%를 기록하였다.

2012년 1월 IT산업 주요 국가/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억 달러, % : 전년대비)

구 분	반도체	패 널	휴대폰	전 체
전 체	37.7 (△8.0)	22.7 (△11.2)	14.4 (△39.3)	111.8 (△12.8)
중국(홍콩포함)	20.4 (△6.4)	17.3 (3.7)	3.2 (△26.4)	55.0 (△3.0)
미 국	2.4 (△10.9)	0.1 (△48.5)	5.1 (△27.5)	12.1 (△13.7)
일 본	2.1 (△23.9)	0.2 (△72.0)	3.0 (36.8)	7.4 (△6.6)
E U	1.2 (△51.1)	2.6 (△14.2)	1.2 (△61.5)	8.5 (△33.6)

출처: 지식경제부